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9 호

2019 년 8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지역 네트워크 포럼 2019(UNGC ALNF 2019)' 공유(7/15-16)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7/17)
3. <나주·광주>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7/24)
4. <대전·세종>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7/25)

■ 본부 소식

1. 리세 킵고 사무총장, 지역 네트워크가 구현한 각 국가 차원의 진보적 SDGs 이행 현황 강조
2. 비즈니스 리더들, 대규모 기후 행동 및 재정 동원 방안 모색
3.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 파트너십
4. 유엔,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파트너십 확

대 방안 모색

5. 기업 및 정부 대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논의
6. 글로벌 주요 28社, 기후 도전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나서
7. 폴란드 정부,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 참여.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남은 음식을 반값에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
2. [Goal 6,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 UNGC 회원 뉴스

1. 유한킴벌리, 51기 그린캠프 개최..168명 참여
2.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
3. 한국공항공사, 산학협력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나선다

■ CSR 뉴스

1. 인권 경영, 이젠 비즈니스 경쟁력의 척도
2. `지속가능 미래전략` 기업들도 본격 시동건다
3. 포괄적인 녹색성장 지식 파트너십 구축
4. 일자리 늘린 LH, 청렴도 높은 건보..."공공기관 우수사례"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지역 네트워크 포럼 2019(UNGC ALNF 2019)' 공유



7 월의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지난 7 월 15-16 일 양일 간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일년에 한번, 전 세계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민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지역 협회 포럼(UNGC ALNF 2019)'입니다. 2018 년 아르헨티나에 이어 올해 연례 포럼은

UNGC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019 년 연례포럼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혼란한 세계에서 티핑 포인트를 이끌어 내는 방법'

ALNF 2019 에서 만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오늘날과 같이 혼란함이 가중되는 세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우리가 여러 도전을 맞고 있지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SDGs 17 개 목표, 169 개 세부목표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SDGs 이후 4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멍니다. 성 격차(Gender Gap)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00 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일을 하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무적인 것은 서베이 결과로도 입증되었듯, 실제로 CEO 들이 SDGs 에 대해 고민하고 벌써 67%의 CEO 가 SDGs 를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SDGs 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은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Global Compact: 하나로 더 크게 성장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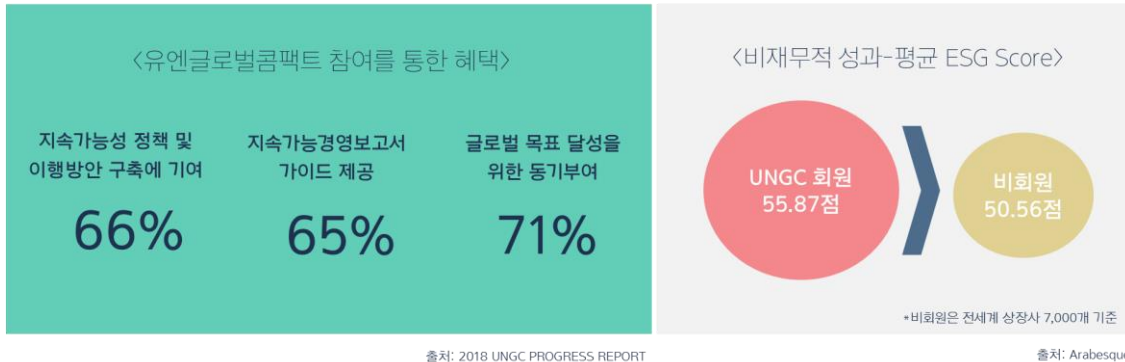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7년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협회는 2018년부터 도입). ALNF 2019에서는 정책 도입 후 현재까지의 경과가 공개되었는데, 대부분 회원사가 기존 회원자격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94% 이상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입증해 주는 결과입니다.

신연회비 정책 도입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들은 2개의 참여레벨, Participants와 Signatory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번 조사 결과 기업 회원 10,195개 중 1,515개가 Participants 레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 결과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SME)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SME의 CSR 활동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퀀트 펀드 자산운용사 아라베스크파트너스 파트너에 따르면, S-Ray(에스-레이)로 불리는 금융공학의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55.87점)가 비회원(50.56점)보다 ESG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articipants Trends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통한 가장 큰 혜택을 묻는 질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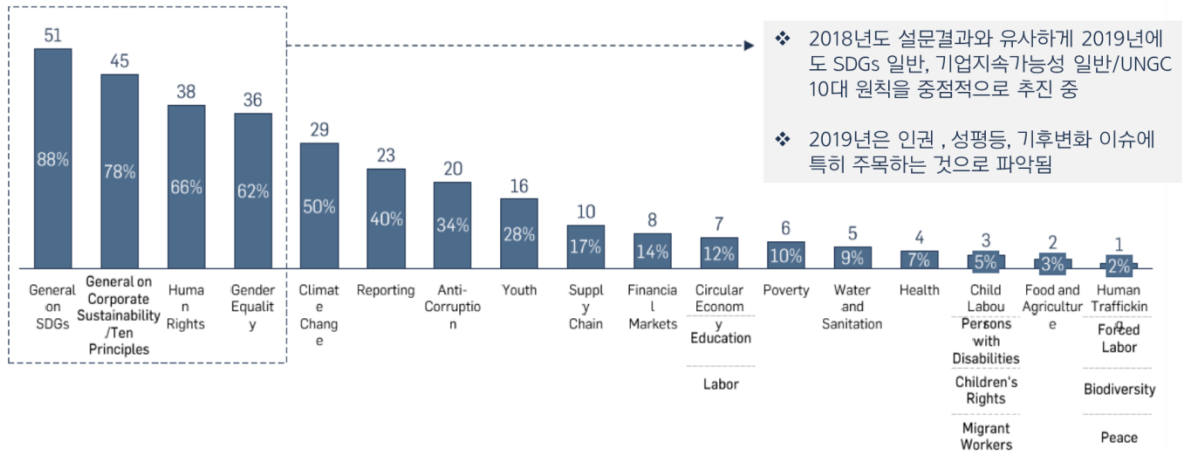
-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71%),
- △지속가능성 정책 및 이행방안 구축에 기여(66%),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 제공(6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UNGC LNs Issue Priorities

Top issue priorities for 2019 that the Local Networks will be organizing their activities around

of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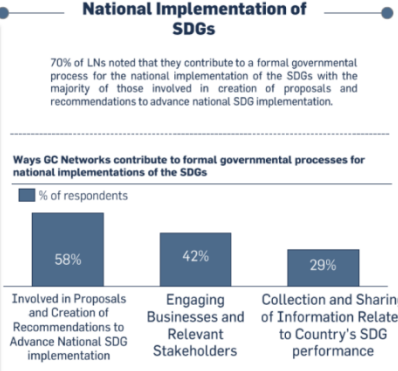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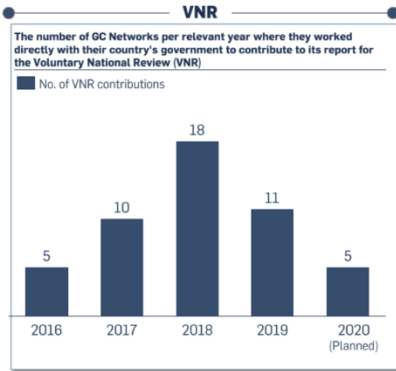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2019년 포커스 이슈에 대해 묻는 설문에는

- △SDGs 일반(88%),
- △기업지속가능성 및 10대원칙 일반(78%),
- △인권(66%),
- △성 평등(62%),
- △기후변화(50%)

순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HLPF Voluntary National Review X UN Global Compact

HOW NETWORKS ARE ENGAGING ON NATIONAL SDG IMPLEMENTATION



- ❖ HLPF 자발적 국별 평가 과정(VNR)에 민간 부문 기여도에 관한 보고가 확대되는 추세
- ❖ 여러 UNGC지역협회가 정부 및 민간부문의 SDGs 이행 노력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활동:
 - 국가 SDGs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참여
 -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 협력
 - SDGs 성과 취합 및 공유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역협회는 HLPF 자발적 국별 평가 과정(VNR)에 참여하며 정부 및 민간부문의 SDGs 이행 노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 △국가 SDGs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참여,
-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 협력,
- △SDGs 성과 취합 및 공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HLPF 자발적 국별 평가 과정에 민간 부문 기여도에 관한 보고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여러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정부 및 민간부문의 SDGs 이행 노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K Example



Section 6. Safeguard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 Mandatory Training on safeguarding recorded and signed by staff members and held in personnel files/HR
- Complaints procedures in place and used - a recent resolved case would demonstrate this or signposts displayed in the organisation's offices illustrating how to complain
- Review of protocols for survivors including available support

6.c) Membership of the UN Global Compact (UNGC)
DfID requires all Level 1 Supply Partners to be signatories to the UN Global Compact (UNGC) and would actively encourage all other Supply Partners to consider signing up to the UN Global Compact, although it is not a contractual requirement. Other support organisations can provide support and guidance with mitigating risk within your supply chain, i.e. 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

More information about both the UNGC and ETI can be found here: <https://ethicaltrade.org/about/>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uk-network/>

FR Example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 (Duty of Vigilance Law, 2017)

- ❖ 주요 내용
 - 모회사가 자사의 사업 활동을 비롯해 자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의 인권 및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할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
 - 기업은 매년 인권 및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방지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 해야 함
 - 모니터링 계획에는 프랑스 상법에서 정의하는 기업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자유권 침해, 심각한 부상, 건강상 리스크 또는 환경피해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
- ❖ 적용 대상
 - 기업 분사 및 프랑스에 위치한 자회사에 최소 5천명의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프랑스 또는 해외에 분사가 있는 기업 중 협력업체, 공급업체에 직원 1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최근 영국 국제개발부의 공공조달 지침서(Supply Partner Handbook)에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프랑스에서도 2017년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이 시행되어 모회사가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의 인권 및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가 확대되면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정부 간 상호작용이 점차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의 우수 사례를 글로벌 커뮤니티에 알리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SDGs 이행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3월 국내 발간된 SDGs 기업 우수 사례집,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정_ 2019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영문본, 'Sustainable Journey Towards Agenda 2030_ Best Korean Companies Implementing SDGs'을 출간하여 이번 'UNGC ALNF 2019'에서 선보였습니다. 본 발간물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이름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알리는 동시에 각 기업들이 SDGs를 자사의 핵심 사업에 연계하고 이행하는 활동 사례를 UNGC 본부를 포함한 60여개 국가에서 참여한 지역 협회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묶은 사례집의 국, 영문 출간과 해외 행사에서의 홍보 활동을 높게 평가하며, 우수 케이스 스터디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리세 킵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또한 본 발간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GC 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업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본부 주도로 다양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Action Platforms

<p>THOUGHT LEADERSHIP ON CRITICAL ISSUES Shape the UN Global Compact's definition of leadership on critical sustainability issues and inspire continuous performance improvement</p> <p>TIME-BOUND ACTION PLANS Encompass multiple workstreams that are offered over a period of 2-3 years with concrete and action-oriented objectives</p> <p>MOBILIZING INFLUENCERS Engage companies and stakeholders with the power and influence to move sectors and peers in the right direction</p> <p>LEVERAGE THE UNIQUE ROLE OF UNGC Utilize the unique assets of the UN Global Compact to reach scale through our Local Networks and to align external incentives in collaboration with the broader UN system, Governments and investors</p>	 <p>Reporting on the SDGs</p>	 <p>Financial Innovation for the SDGs</p>
	 <p>Pathways to Low-Carbon & Resilient Development</p>	 <p>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p>
	 <p>Water Security through Stewardship</p>	 <p>Sustainable Ocean Business</p>
	 <p>Health is Everyone's Business</p>	 <p>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s</p>

우선 현재 8 개의 행동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Reporting on the SDGs),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길 (Pathways to Low-Carbon & Resilient Development), △SDGs 를 위한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for the SDGs), △보건은 모두의 비즈니스 (Health is Everyone's Business),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Sustainable Ocean Business), △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 안보 (Water Security through Stewardship),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s) 등의 행동플랫폼은 LEAD 기업과 각국 협회, 유엔 기구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행동 플랫폼들은 SDGs 이행 증진을 위한 격차를 좁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플랫폼 활동을 통해 회원사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네트워킹 및 동료학습(Peer-Learning)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9 Issue Priorities


Advancing the SDGs through Core Business



Action for a 1.5° Climate Future



Powered by Her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SDGs를 기업 핵심전략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는 'Advancing the SDGs through the core business', △과학기반의 감축목표를 약속하는 'Action for a 1.5°C Climate future', △여성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Powered by her'입니다. 'Advancing the SDGs through the core business'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SDGs 보고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최신 동향 및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참여자 간



동료학습이 가능합니다. 'Action for a 1.5°C Climate future'는 지구 기온 상승을 상업화 이전 대비 1.5°C도 제한하고 나아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약속하고 이행하는 플랫폼으로 2019 Climate Action Summit 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Powered by Her'는 직장 내, 지역사회 내 양성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 밖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재해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음 세대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위해 'Young SDG Innovators'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 소속의 35세 미만 직원 중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속가능성, 기술 혁신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Young SDG Innovator'로 선정 시 워크숍, 기업 방문, 사례 연구 등을 통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산업 및 업무 담당자와의 멘토링, 동료학습, 네트워킹 등이 가능합니다. 2019/2020 'Young SDG Innovator'는 8월 31일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피 아난의 제안 그 20 년 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래’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1999 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 인간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공유가치 및 원칙 기반의 ‘글로벌 콤팩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0 년, 2019 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14,000 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성장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참여를 이끌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젠다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회원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고, 유엔-비즈니스 간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SDGs 임팩트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COP 를 강화하고, SME 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UNGC 회원사들의 SDGs 이행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UNGC ALNF 2019 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활동은 물론 전 세계 회원사 및 협회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성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와 SDGs 이행은 점차 글로벌 공통의 언어가 되고 있는 오늘날,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 김경민 과장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7/17)



-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BSI그룹 코리아 인권경영 담당자 등 17인
- Co-Chair: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부장, BSI그룹 코리아 한정민 전문위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17일 사무처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경영 확산 현황·계획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2부에서는 참여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1부 첫 순서로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은 인권경영 확산 현황 및 추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인권경영의 정의부터 인권경영 추진 동향, 인권영향평가 및 국내기업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본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적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지역공헌 활동을 하는데 이는 인권경영의 본질이 아니며, 본연의 사업 수행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화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경영 담당자의 역할은 각 부서의 인권 이슈를 총괄하는 것이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관련, 윤리경영위원회와 같은 기존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를 보강해서 구성하는 것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국내 제도화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규모 및 기업 환경에 따른 인권경영 접근법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3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 차 8 월 22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참석 및 의견 제시도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권경영 이행에 있어서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사내 인식제고, 위원회 구성 등 실무 차원에서 이행의 어려움을 나누며,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2 부에서는 임애화 UNGC 한국협회 과장의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 계획안 브리핑과 더불어 각 참석자들의 자사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실무그룹의 하반기 활동으로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설문조사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 2019 Global CSR Conference '기업과 인권' 분과세션 개최 ▲실무그룹 활동 결과 발간물 제작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권영향평가 범위 선정, 시행 사례 및 시사점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방법 ▲협력사 대상 인권 지침 확대 및 모니터링의 법적 제약 ▲인권경영 전담 부서 지정, 부서간, 부서내 업무 분장 조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선정 ▲자원 배분 및 예산 확보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형태 ▲최근 발생한 인권 침해 신고 및 구제 사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최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타기관 벤치마킹 및 글로벌 기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많은 공공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공시 범위 이슈에 대해 “글로벌 공시 기준이 지난 수십년간 진화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GRI 와 같은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권경영 공시 역시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글로벌 기준 및 지표를 국내 제도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가이드라인 발간, 설문조사 시행, 세미나 및 국제회의 분과세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등 인권경영 관련 추진 정부 기관에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0 월 초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발간과 더불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3. <나주·광주>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7/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지난 7월 24일(수)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동주최,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나주·광주 지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 소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지역 소재 우수기업 사례 ▲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혜택 및 절차 등을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과 정부의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주·광주 지역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임이 계속 이어져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객글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과 SDGs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각국의 CSR 법제화 추세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제화 강화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신뢰도 향상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보편적 가치 이행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UNGC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UNGC 에 대해 소개하고, 글로벌 아젠다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SDGs 목표를 연계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UNGC 및 SDGs 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첫번째 우수기업 사례 발표로 임아영 한전 KDN 윤리준법팀 차장은 자사의 윤리경영 활동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KDN 의 ‘18 년도 반부패 청렴윤리 중점 추진과제로 ‘CEO 중심의 청렴 인프라 혁신’을 선정하였으며, 24 차례 참여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좋은 피드백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2018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1 등급)”을 받았고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기능 강화로 부패발생 제로, 부패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 또한 나주혁신도시에 청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빛가람 청년문화제 ▲협력사 청렴인권 상생워크숍 ▲갑질금지 캠페인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세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가치창출부 과장은 자사의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공사 주요 인권경영 이슈 식별을 위해 기관운영, 주요사업, 지원/협력사 인권실태 조사를 시행했고, 인권실태조사지 사전 배포 후 FGI(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기관운영 측면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이슈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사업 후보군을 선정했고, 산업안전 이슈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권경영 이슈는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은 UNGC 의 이슈별 플랫폼과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기회를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개요, 참여 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 에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 와 CSR, SDGs 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문보기]

4. <대전·세종>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7/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7 월 25 일(목), 한국철도공사 본사 7 층 회의실에서 올해 네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가 후원하는 본 설명회는 대전·세종 지역 소재의 UNGC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공기업 우수 사례 ▲UNGC 참여 혜택 및 절차 등을 공유하고 UNGC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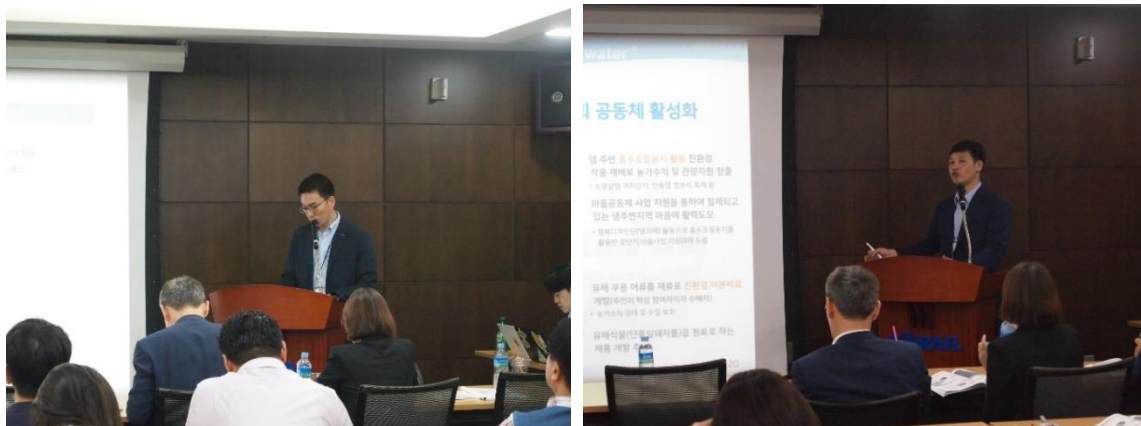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나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게도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에서도 전 세계 14,000 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동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동체성이 같이 요구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Bottom-up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경영평가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들이 변화의 대상을 넘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CSR 의 법제화와 더불어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비즈니스 경쟁력 차원에서도 key factor 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업들도 체감하고 있다. 점차 기획이나 전략 부서에서 CSR 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전략, 목표 및 지표설정 등에 대한 공개요구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TCFD), 반부패 이슈에 있어서도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전 세종지역 UNGC 회원사의 우수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노해룡 차장은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현재 가장 큰 이슈이며, 모든 방향성에서 공공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환경 ▲양질의 일자리 ▲보편적 철도 서비스 ▲상생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이용객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재정투자를 3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 운행 중에도 차량의 안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ICT 및 IOT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정비기지에 드론, 로봇시스템과 같은 설비에 65 억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신홍섭 차장은 ▲물 인권 ▲안전 및 환경 ▲양질의 일자리 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 공사의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평소와 달라지면 위기상황 알림을 제공해 고독사나 위험을 방지하고, 지자체 홍수를 모니터링 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단비 토크이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을 국민포럼(오프라인)으로 가져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은 UNGC 한국협회 개요, 가입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에 가입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와 CSR, SDGs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사이트와 우수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본부소식

1. 리세 킹고 사무총장, 지역 협회가 구현한 각 국가 차원의 진보적 SDGs 이행 현황 강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리뷰가 7월 15, 16일 양일 간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 아젠다를 각 국가 차원에서 진전시키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지난 4년 동안, 70개에 가까운 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들이 글로벌 목표를 각 국가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전 세계 기업들이 놀라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81%의 기업들이 글로벌 목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72%는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위급 정치포럼과 함께 '로컬 2030(Local203)'에 의해 구성된 '글로벌 약속을 위한 지역행동(Local Action for Global Commitments)' 행사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유엔기관 및 시민사회가 글로벌 목표를 지역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글로벌 목표를 달성 가속을 위한 기회 플랫폼 제공 등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2030 아젠다 이행에 있어 글로벌 목표를 위한 재정적 조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기업들에게 해외직접투자에 “SDG 렌즈”를 적용하고, 기업 연금이 SDGs 와 연계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SDG 채권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리사 파월(Melissa Pow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총괄은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을 위한 Goal 17 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로컬 2030(Local2030)’은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유엔, 민간, 시민사회, 자선단체 및 학계의 리더들을 모아 국가 차원에서 SDGs 를 진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UN 차원의 플랫폼입니다.

[\[원문보기\]](#)

2. 비즈니스 리더들, 대규모 기후 행동 및 재정 동원 방안 모색

7 월 15 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유엔 특사인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대사와의 기후행동 및 재정 동원에 관한 대화를 위해 50 여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투자자, 비즈니스 기관 대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민간부문의 참여 가속화와 미래 온실가스 제로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데 알바(de Alba) 대사는 다가오는 9 월 23 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 알바(de Alba) 대사는 금융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금융과 자원과 관련해 우리는 필요한 것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에 관한 공통 정책과 투자자들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지향하는 인센티브가 해결방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우리는 현재 세계가 글로벌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 해양, 불평등 문제에 관해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 인류는 사상 최대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변혁은 이제껏 보지 못한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덴튼(John Denton) ICC 사무총장이 주재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경제를 저탄소 경로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며,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재정투자의 역할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꽤 급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들은 기업들에게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런칭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1.5 시나리오가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원하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불과 한 달 전에 런칭되었지만,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몇몇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 액션랩(SDG Action Labs)’의 일환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세계 벤치마킹 동맹(World Benchmarking Alliance), 유엔글로벌콤팩트 멕시코협회 및 Anglo American, AVIVA, Nestlé, PIMCO, SAP 등 여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원문보기\]](#)

3.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 파트너십

7 월 18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2030 아젠다를 지지하는 혁신적인 국가파트너십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정부,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 및 유엔 대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고위급정치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과의 협력을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유엔 회원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협회와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사에서 가산 하즈바니(Ghassan Hasbani) 레바논 부총리는 "SDG 프레임워크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통일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책임은 기관이 호혜적 행위로서의 CSR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핵심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도록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SDGs 는 더 이상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민간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회사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은 민간부문에 남겨둘 수 없으며, 체계화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는 기업들이 다른 국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책임경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차별화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도전에 맞서고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을 이끌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의 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아르헨티나협회, 인도네시아협회, 레바논협회는 로타 타티넨(Lotta Tähtinen) 유엔경제사회부 SDGs 부문 지원 및 파트너십 지부장이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구체적인 파트너십 예시를 공유하였습니다.

타티넨(Tähtinen) 지부장은 “오늘 아침 우리는 파트너십에 관한 자발적 국가 평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연구소를 열었고, 매우 많은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타티넨 지부장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arcena)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민간, 정부, 시민사회 간의 대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리시아 베르세나 사무총장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부문, 시민사회, 정부는 2030 아젠다 완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야와 경제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합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문보기\]](#)

4. 유엔,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파트너십 확대 방안 모색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관한 본 행사에는 국제 사용자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 (the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딜로이트가 함께 했으며, 파트너십의 규모에 대한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라며,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기후 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비즈니스 기회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과 투자규모는 26 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장 자크 엘마이거(Jean-Jacques Elmiger) 국제노동부 국장은 SDGs 의 달성을 위한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SDGs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사용자기구 수아레스 산토스(Suarez Santos)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딜로이트 제프 슈바르츠(Jeff Schwart) 컨설팅 본부장은 본 행사가 SDG 8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약속'이라는 광범위한 내용의 일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

5. 기업 및 정부 대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논의



70 명 이상의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 대표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 참여하고, 글로벌과 지역 수준에서의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관한 목표 16 을 발전시키는데 다자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가 뉴욕 사무소에서 주최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랫폼에 관한 '제 1 회 유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플랫폼의 축소와 행동의 강화(UN-Business Roundtable on the Action Platform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Less Platform. More Action)'에서는 지속가능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 개발의 상호 의존성 증가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연사들은 목표 16 을 지원하는 다자간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발전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의 환영 연사로 참여한 유엔글로벌콤팩트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책임 있는 기업은 그들의 권리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법률 및 시스템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 및 봉사하고 동시에 인류, 지구 및 번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들의 가치, 전략, 정책 및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랫폼은 목표 16 을 기업 정신에 녹여내고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유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캐나다 대표로 참여한 마크 안드레 블렌차드(Marc-Andre Blanchard) 장관은 민간 부문 리더들에게 "제도는 구성원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업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유의 제도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기여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아킴 스테이너(Achim Steiner)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할 때 책임과 의지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해당 영역에서의 액션 플랫폼은 기존의 표준 프레임 워크를 지원하는 목표 16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표준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착시킬 것이며 모두를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도 PLC(Oando PLC)의 아요토라 야군(Ayotola Jagun) 비서실장 겸 CCO(Chief Compliance Officer)는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서는 불안정성 및 불공정 관련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업체가 위협을 받으면 결국 모든 사업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불공정 활동에 반대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라운드테이블에는 콜롬비아와 스위스 정부 대표들 및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레알(L' Oreal), 네슬레(Nestle) 대표들과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에 대한 액션 플랫폼 후원자들, 그리고 목표 16 을 진전시킨 유엔 주도의 다른 이니셔티브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6. 글로벌 주요 28社, 기후 도전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나서

시가총액 총 1 조 3 천 억 달러의 28 개 기업들이 9 월 23 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앞서, [call-to-action](#) 캠페인에 대응하여 새로운 차원의 기후 목표를 위해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2050 년까지 온실 가스 제로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를 약속하였습니다.

본 선도그룹에는 △Acciona, △AstraZeneca, △Banka BioLoo, △BT, △Dalmia Cement Ltd., △Eco-Steel Africa Ltd., △Enel, △Hewlett Packard Enterprise, △Iberdrola, △KLP, △Levi Strauss & Co., △Mahindra Group, △Natura &Co, △Novozymes, △Royal DSM, △SAP, △Signify, △Singtel, △Telefonica, △Telia, △Unilever, △Vodafone Group PLC and Zurich Insurance 등 17 개 부문과 16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28 개 기업 중 AstraZeneca, BT, Hewlett Packard Enterprise, Levi Strauss & Co., SAP, Signify, Unilever 는 이미 기업운영에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1.5°C 감소 목표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금보다 기후 리더십이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으며,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가 과감하게 목표를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1.5°C 기후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저는 모든 기업들이 이 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8 개 기업의 약속은 지구온난화가 1.5°C 를 초과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기후변화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기후행동정상회의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들에게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제로화 경제로 가는 주요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우고, 9 월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선도기업에게 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세계 재계 기후 지도자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기업들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가 최신 기후과학에 맞춰 국가계획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제로화 경제라는 계획을 이루려면 비즈니스 리더십과 야심찬 정부 정책이 요구됩니다. 1.5°C 궤도에 맞춰 정책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에게 미래 탄소 제로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기후 목표 기준을 높이는 기업들은 최신 기후 과학에 대한 기업 배출 감소 목표를 평가하는 [과학 기반 목표\(SBTi\)](#)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 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파리협정에 맞춰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9 년 4 월 SBTi 는 기업들이 1.5°C 와 일관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 검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폴 심슨(Paul Simson) SBTi 임원 및 CDP CEO 는 “과학은 명확합니다. 기후 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는 온난화가 1.5°C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는 높지만, 분명하며 과학기반 목표는 기업들에게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아 비즈니스를 1.5°C 미래에 맞추고 온실가스 제로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6 월 발행된 역사적인 Call to Action 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레스(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유엔총회 회장,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글로벌 옵티미즘(Global Optimism) 공동 창업자, 존 덴튼(John Denton)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폴 폴만(Paul Polman) IMAGINE 공동설립자 등 25 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한 1.5°C 궤도를 약속한 CEO 들은 9 월 23 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의 일환으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민간부문포럼에서 언급될 예정입니다.

['Business Ambition for 1.5°C — 우리들의 유일한 미래 캠페인'에 관한 정보 보러가기](#)

[전체 기업 리스트 보러가기](#)

[\[원문보기\]](#)

7. 폴란드 정부,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 참여.

폴란드 정부가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공헌 및 이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14 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overnment Group)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과 저지 키첸스키(H.E Jerzy Kwieciński) 폴란드 금융경제개발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에 유엔에 대한 폴란드의 영구적 양해각서(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the Permanent Mission of Poland to the United Nation)에 서명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폴란드의 정부그룹 참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션에 폴란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키첸스키(Kwieciński)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이 폴란드 기업들과 유엔 기구들 간 직접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란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폴란드의 전략 이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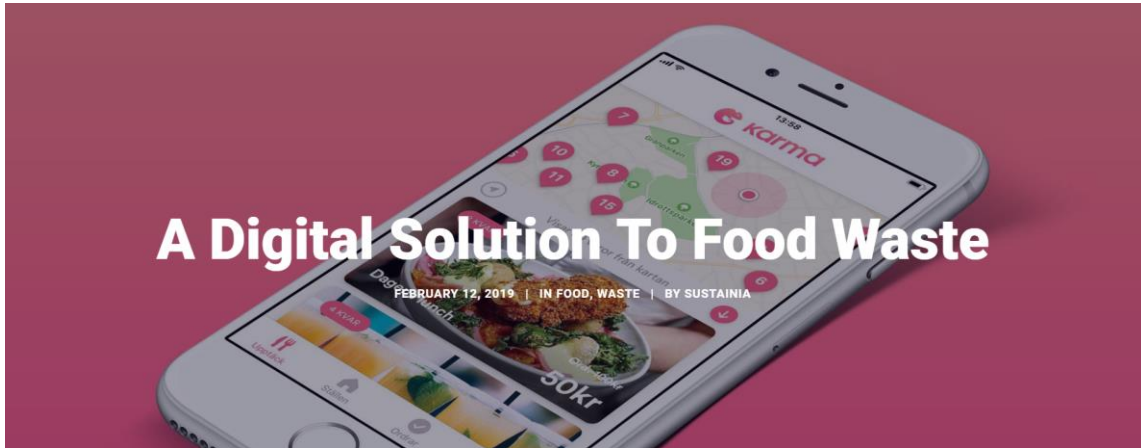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UN Global Compact Government Group)에는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 년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폴란드 협회에는 약 70 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 질 향상, 물 부족문제 해결, 부패척결 및 지하경제와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남은 음식을 반값에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



카르마(Karma)는 앱 서비스를 통해 레스토랑, 카페, 식료품점에서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식품을 반값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르마는 소매업자들이 앱을 통해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식품을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연간 50,000 유로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win-wi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레스토랑의 고급음식을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레스토랑, 카페, 식료품점 등과 같은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의 식품 소비량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수요를 적게 측정하여 고객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품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매업자들은 카르마 앱을 통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미판매 식품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를 팔로잉하는 앱 이용자는 즉시 알림을 받고, 해당 식품은 보통 수 분 안에 판매 됩니다. 이후 고객은 편한 시간에 식품을 찾아갈 수 있고, 결제는 앱을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카르마는 400,000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갖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지금까지 245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Why you should care

식량농업기구(FAO)의 측정에 따르면, 매년 약 13 억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식품 생산량의 1/3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 조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매년 2 억 2200 만 톤의 음식물을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서부 아프리카의 연간 식품생산량(2 억 3000 만톤)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카르마는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판매로를 제시함으로써 소매 수준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카르마는 지금까지 소매 수준에서 245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원문보기\]](#)

2. [Goal 6,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water는 환경가치, 공익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서비스의 4대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9개 과제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대,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해 지구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K-water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수재해 대응력 강화 및 수자원 시설 안정성 강화 사업 추진으로 재난·재해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댐·보 및 수도시설 연계운동을 통해 가뭄, 홍수 등 물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물환경 전담조직 신설, 수량·수질 대책 적극 시행 및 과학적 수질예보로 수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되고, 경기·인천지역에서 수돗물 냄새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수질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154백만m³을 확보·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맑은 물 공급

K-water는 파주시의 스마트물관리 성과를 기반으로 '건강한 물' 패러다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로 물 소외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수혜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 검침,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고령군, 봉화군 등 K-water가 수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생활 모니터링과 검침원 방문검침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자 SMS 알림, 취약계층 옥내누수 수리, 청소·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에너지·도시 융합서비스 서비스 확대

K-water는 물의 생태·문화적가치와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지속가능 한 수변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로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K-water는 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낙후지역 물 시설 보수(행복가득 水), 해외 물 부족 지역 상수도 설치(상생가득 水), 사랑나문 의료 봉사(사랑가득 水), 청소년 해피워터 희망 멘토링(희망가득 水) 등 지역사회와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water 및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설립·운영중인 아시아물위원회 (AWC, Asia Water Council)를 주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를 대처하고 물 문제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을 시행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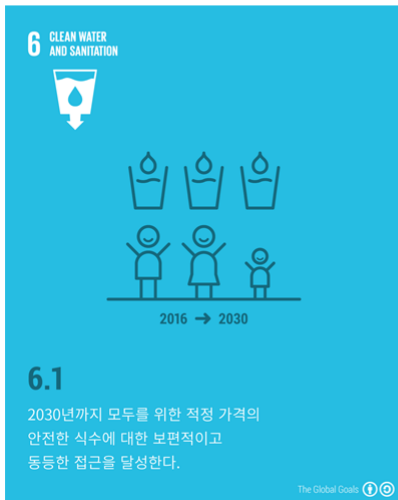
앞으로 k-water는 물관리 기술 및 50년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 혁신 및 창의성을 더해 세계와 다음세대에 깨끗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6.1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77년 유엔 물 회의(UN Convention on Water)에서 채택한 마르델플라타 행동계획(Mar del Plata Action Plan)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식수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접근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MDGs에 안전한 식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2년 물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엔고위급 실행위원회(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는 2003년 위생을 포함하여 담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부처간 기관인 UN WATER를 발족했습니다. UN WATER는 2005년부터 2015년을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0'의 10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보장이 SDGs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7.16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유엔의 개발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체계로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2000)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 새 천년 개발 목표(MDGs)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에서는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빈곤퇴치와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주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 역시 단일 국가를 넘어선 민간기업, 시민사회, 의회,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2012)의 결과문서에 이어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하여(2014)'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도상국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견인차로 보고, 국가의 역량과 필요,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UNGC 회원뉴스

1. 유한킴벌리, 51기 그린캠프 개최..168명 참여

유한킴벌리, 51기 그린캠프 개최..168명 참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9.07.29 16:13



지난 26일 '나를 찾는 숲 속' 트레킹을 마친 참가자들이 한반도 생태복원을 위한 모독 기부증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한킴벌리

- 유한킴벌리는 지난 26일부터 3박 4일간 황성군 둔내면 소재 국립황성 숲체원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 51기 그린캠프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힘.
- 올해는 스스로 숲을 경험하고 지구환경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해 보는 '자기 주도식 숲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나를 찾는 숲속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고생들이 숲속에서 가장 원하는 활동인 '생각 정리하기', '숲 속 걷기' 등을 체험 할 수 있게 함.
-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고 미래와 지구의 환경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미래 주인공들 스스로가 숲과 사람의 공존, 그리고 지구와의 어우러진 삶과 미래에 펼쳐질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함.

[머니투데이](#)

2.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07.26 | 13면



포스코는 5일 본사 대회의장에서 기업시민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포스코 오창서 차장(모형 제강부), 포스코케미칼 박성규 과장, 포스코 노동조합 김연철 위원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 임순 대리(광양 도강부), 포스코 노경협리회 강용구 대표, 크라카타우 포스코(PT. KRAKATAU POSCO) 무콜리스 리더

- 포스코가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1 주년을 맞아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함.
- 이날 선포한 기업시민헌장에는 '고객·구성원·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겠다'는 방향이 담겨있음.
- 이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를 구현에 앞장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로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회사 조성 등 3 가지 실천과제와 각 과제별 3 가지의 세부 행동준거를 마련함.
- 최정우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기업시민헌장이 구성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에 준거가 되어 Business-Society-People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공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자"고 당부함.

[경북일보](#)

3. 한국공항공사, 산학협력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나선다

한국공항공사, 산학협력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나선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 입력 : 2019.07.24 10:02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한국문화정책학회·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과 업무협약... 항공분야 취업 확대 추진



- 김포·제주·김해를 비롯해 전국 14 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함께 항공분야 취업 확대를 추진함.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3 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정거래 △사회공헌 등 국민의 공익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활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교육·문화·학술 교류 증진과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함.

[머니투데이](#)

CSR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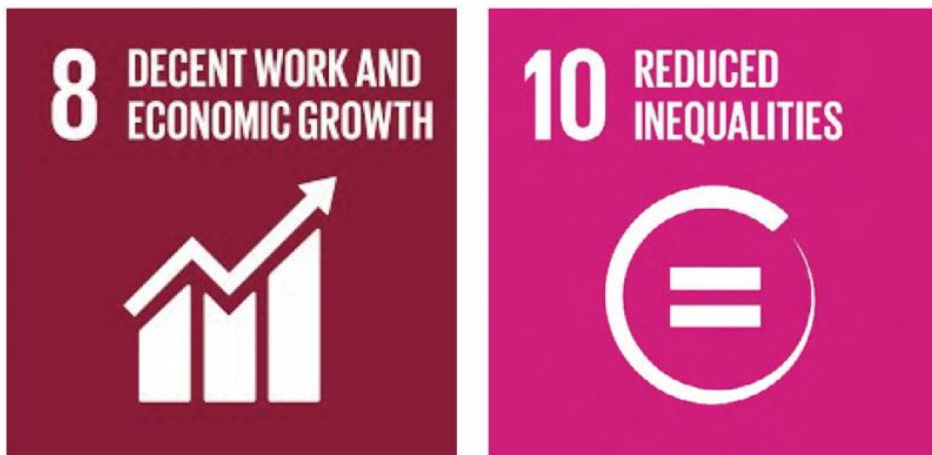
1. 인권 경영, 이젠 비즈니스 경쟁력의 척도

세계 최대 종합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는 135년이라는 긴 역사와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인권 경영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스프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인권 경영의 기준을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달, 환경, 안전, 인사, 법무, 제품 관리, 보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직무에 통합한 점이 돋보인다. 모든 직무에 인권 정책을 내재화해 직원들이 친인권적인 관점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예컨대, 조달팀은 공급자 행동강령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며, 중소기업 제품 우선 선정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법무팀에서는 인권 경영에 걸맞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도 인권 관련 이슈를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한다. 인수합병(M&A)이나 투자 결정을 할 때도 지속가능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전략 수립 및 개발 시에도 인권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바스프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행동강령을 본사뿐 아니라 7만 개 이상의 협력사에 12개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직원들과 강령의 원칙을 공유한다. 인권을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 경쟁력 차원에서 이해하고 전사적으로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바스프는 모든 비즈니스 정책과 구체적인 직무에 인권 존중의 원칙을 통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인권 존중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로 자리 잡았다. 20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9500개의 글로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의 기업이 현재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7%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90%가 인권 경영이 기업의 이윤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관련 법제화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발맞춰 인권 경영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로도 기업 내 인권 경영에 대한 문의가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및 'ILO 선언'에 근간을 둔 6가지 원칙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유엔 어젠다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권 경영 전문 연구소로 손꼽히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HR)는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 90% 이상이 핵심적인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SDGs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인권 존중이 필수적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인권은 빈곤, 식량, 건강, 교육, 성 평등, 불평등, 육상·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같은 SDGs 목표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달성, 아동 노동 철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동자·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불평등 완화는 인권 경영의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 관련 SDGs

기업은 인권 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인권 존중의 가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근속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및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인권 침해 위협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 Impact Assessment)가 있다. 스위스 기업 네슬레는 다국적 기업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네슬레에는 3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86여 개 국가의 약 450개 공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공급망 자체가 광범위하고 국가별로 인권 리스크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네슬레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국가의 법과 규범을 조사하고 국가 특수성을 반영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 전문 기관인 덴마크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네슬레는 단순히 평가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네슬레 경영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및 브리핑을 진행해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기업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한 다국적 기업들에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국내 민간 기업에서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경영평가로 공공기관들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인권 경영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내부 이해관계자의 근무 환경개선, 차별 금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급망 내 원자재 조달, 협력사 관리, 공정거래, 지역사회 관계, 제품·서비스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이 인권 경영의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급망 내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다음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상장기업 및 공급사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분쟁 광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부품의 주요 원재료로 쓰인다. 분쟁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아동노동과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고, 광물 수익금이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규제대상 광물과 지역이 인도네시아산 주석, 콜롬비아산 텅스텐, 구리,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철, 코발트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EU 등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주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Nestlé Good Food, Good Life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2018년 IBM,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LG화학 등 5개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착한 코발트' 공급망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위·변조가 힘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채굴, 정련, 배터리 제조 같은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도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및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노동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계약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노동계약 준수를 장려하고 강제 노동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코카콜라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물을 지역사회와 자연에 환원하는 '물환원 프로젝트' 목표를 이미 2015년에 100% 달성하고 그 비율을 높여가는 등 물과 관련된 인권확보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전 세계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추진하는 코카콜라의 새로운 시도가 글로벌 인권 경영의 트렌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다.

[\[원문보기\]](#)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동아비즈니스리뷰 277호(2019년 7월 Issue 2)에 기고한 글입니다.**

2. 지속가능 미래전략` 기업들도 본격 시동건다

`지속가능 미래전략` 기업들도 본격 시동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캠페인
RE100 한국기업 참가 추진

롯데 지속가능 성과 보고서
SK 사회적 가치 수치화 등
글로벌 수준 친환경 동참

이한나,이유진,김하경 기자 | 입력 : 2019.07.24 17:06:45 수정 : 2019.07.25 09:23:21

- 애플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 에 가입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협력업체들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요구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받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오는 10 월께 추진한다고 밝힘
-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 말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를 설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 변화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김태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함. 이는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는 의미임.
- 비재무적 요소 측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며 이에 유럽의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주도해 사회적 가치를 회계기준처럼 정리하는 글로벌 표준화 작업 협의체를 구성함. 국내에서는 SK 가 참여함.

[매일경제](#)

3. 포괄적인 녹색성장 지식 파트너십 구축

포괄적인 녹색성장 지식 파트너십 구축

녹색 산업·금융 지식 기반 플랫폼 개발, 녹색 경영 활동 지원

백지수 리porter 승인 2019.07.22 15:04 댓글 0



녹색 성장 지식 플랫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에서 녹색 채권, 지속가능한 인프라, 친환경 표준 및 규제 등을 비롯한 친환경 비즈니스, 금융, 정책에 달하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한다.

- UN 환경은 지난 16 일 뉴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세계 최대 각국 단체들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녹색 산업(Green Industry)과 녹색 금융(Green Finance) 지식 기반 플랫폼을 소개함.
- 녹색 성장 지식 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에서 녹색 채권, 지속가능한 인프라, 친환경 표준 및 규제 등을 비롯한 친환경 비즈니스, 금융, 정책에 달하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함.
- 녹색 산업 플랫폼은 중소기업들이 자료, 최종 제품, 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익 개선을 위한 정보도 제공해 줌.
- 녹색 금융 플랫폼은 은행, 보험, 투자회사들에 녹색 경제 전환에 대한 최근 금융 부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가 천연자원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환경일보](#)

4. 일자리 늘린 NH, 청렴도 높은 건보...“공공기관 우수사례”

일자리 늘린 NH, 청렴도 높은 건보...“공공기관 우수사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등록 2019-07-26 오후 3:00:00
수정 2019-07-26 오후 3:00:00
조혜영 기자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26 일 '2018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힘.
-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체계’로 개편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경영실적을 평가한 첫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노력과 실적을 보여준 공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함.
- 조경호 감사평가단장도 “이번 감사평가는 평가주기 단축, 성과급 연계 등 강화한 감사평가를 진행한 원년”이라고 했으며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앞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나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이번 발표에선 재무지표보다는 일자리와 상생협력, 윤리경영, 안전이 강조됨. 만약 부채가 늘어 재무지표가 나빠졌더라도 일자리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음.

[이데일리](#)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고려제강

2. COP/COE 제출회원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10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GS 건설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한화케미칼
- MYSC
- 미래에셋대우
- KT estate
- 국민은행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현대건설
- 한국가스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DB 산업은행, 포스코,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전산업개발,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전자, 우리은행, 두산, CJ 제일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교보생명보험, 케이티에스테이트, 한국가스기술공사, 케이티넷,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이젤,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비타트,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독립기념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